



# Hello~ 대덕! Are you on-line?

글 | 김 현\_ 기자 hkim@kofst.or.kr

**전** · 현직 일간지 기자 3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대덕연구개발특구 전문 인터넷 매체다. 2000년 9월 대덕넷 e-clips라는 뉴스레터로 시작, 올해 창립 여섯 해를 맞았다.

창간을 주도한 이석봉 대표는 대덕넷을 만든 이유에 대해 “대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모범 답안을 내놓는다. 산업계를 오랫동안 취재해 온 이 대표는 IMF 외환위기를 지켜보면서 그 원인이 ‘국가 기술력의 취약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대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건 회사의 창업 모토가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에서 정보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자’는 것. 6명의 기자가 하루 평균 쏟아내는 15건의 기사 속에서 철저한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003년 2월 ‘원로원 해체해야 한국 과학이 산다’는 기사로 과학기술계 원로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을 때 과학기술계에는 찬반양론이 뜨겁게 엇갈렸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이 기사를 내 보낸 이유에 대해 “그게 현장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지난해 4월 ‘월드베스트! 사이언스 코리아’ 기획시리즈를 보도하며 세계 일류 과학강국 도약을 위한 현실과 과제를 집중 조

명했을 때 박기영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직접취재진을 방문한 일은 아직도 지역에서 회자되는 일화다.

당시 박 보좌관은 대덕넷에 메일을 보내 “어떤 내용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지만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많았는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현장 과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며 직접 대전에 내려와 취재팀과 식사를 함께 했다.

지난해 11월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는 200여 명의 과학기술계 인사가 참석해 사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아주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되는 대덕넷의 행보’라는 말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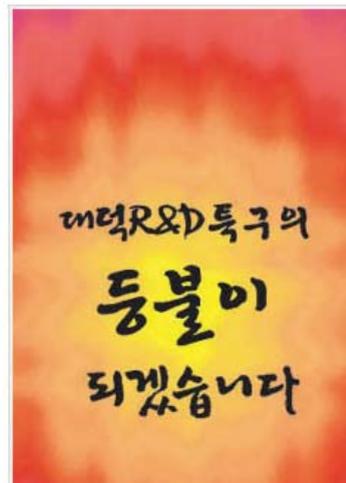
기대어린 비판도 없진 않다. 한 과학언론매체 기자는 대덕넷에 대해 “대덕이라는 독자 특화가 너무 강한 나머지 과학기술계의 대변보다는 특정 지역의 목소리 대변에 치중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덕넷의 단점이자 장점인 부분”이라며 “대전을 거점으로 중앙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당분간은 대덕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특구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대덕넷은 대덕특구 안에서, 혹은 밖에서 길벗이자 비판자로 자리를 잡았다. 대덕넷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오늘날 ‘온라인’ 이다 ㉔

## 대덕넷 5주년... "특구 등불이 되겠습니다"

2월 오후 4시 궁동 본사서 기념식...e-클립스 1천5백호 발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보&네트워크 포털 '대덕넷'이 오는 2월 오후 4시 충남대 정문 앞 승은빌딩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이전식을 개최합니다.

지난 2000년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으로 출발한 대덕넷이 독자들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창립 5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을 비롯해 박인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등 과학계 인사와 박성효 대전시 정무부시장, 김주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최임걸 충청하나은행 대표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는 창립 5주년 및 이전을 기념하고 동시에 대덕넷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덕넷 창립 5주년 행사 때는 과학기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 사회와 과학 사이, 흐르는 정보의 강물

**한** 국과학문화재단이 2003년 6월 창간했다. 당시 매체 창간을 적극 주도한 최영환 이사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와 과학기술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자'는 발행 목적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터뷰 기사를 많이 실자'는 편집방향이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말 황우석 사태 당시 스트레이트 기사 보도가 필요했을 때를 빼놓고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인터뷰 기사가 항상 머리기사로 올라갔다"는 것이 김홍재 편집장의 설명이다.

하루 평균 12건의 자체 기사를 생산하며 이 가운데 인터뷰 기사가 2~3건을 차지한다. 편집국 기자 3명에 전직 언론사 출신 객원기자 10명, 그리고 9명의 탄탄한 과학계 필진이 기사와 고정칼럼을 만들어 낸다.

생산된 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6만 명(2005년 기준)의 독자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된다. 독자 수는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났다. 독자 가운데 80% 이상(87만 명)이 청소년 독자인 점이 눈에 띈다. 홈페이지 기사 조회 수는 하루 1만 여건에서 1만9천여 건을 오르내린다.

일반 독자를 타깃으로 한 사이언스타임즈의 과학 대중화는 일단 합격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실시한 자체 독자 설문에서 답변자 2천642명 가운데 95%가 '사이언스타임즈의 기사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기사는 과학기술계 이슈(34.7%), 과학기술 정책(17%), 신기술 동향(16%)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 이미지도 긍정적이다. 사이언스타임즈의 전반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유익하다'(65%)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재미있다'(13%) '따뜻하다'(9%)는 응답도 있었다.

김 편집장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얻은 이유에 대해 '사회 이슈와 과학을 접목한 기획 기사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이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복원 과정에 숨어있는 과학적 요소를 접목해 '청계천, 과학이 흐른다'는 기획 연재 기사를 내보내는 식이다. 2005년 한 해에만 35건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기획기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이슈 파이팅'에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지난 2004년 6월에는 KAIST 총장직을 두고 거취를 고민하던 로버트 리플린 교수를 단독 인터뷰해 '리플린 교수 드디어 한국행 결정' 기사를 가장 먼저 보도했다. 당시 과학계의 히딩크로 일컬어지던 리플린 총장의 거취를 두고 추측 기사를 내보내던 언론은 '사이언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인용 보도해야 했다.

하지만 사이언스타임즈의 편집방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창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는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어 대덕넷은 연구원 원장부터 연구원 개개인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담는 반면 사이언스타임즈는 주로 단체장 인터뷰가 많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식상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 사이언스타임즈가 발송한 뉴스레터 20건의 머리기사를 살펴보면 자체 기사 3건을 제외한 17건의 인터뷰 기사 중 12건에 단체장이 등장했다. 나머지는 5건의 기사는 대학 교수 4명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간부를 취재했다. 과학자의 '업'을 통해 대중과의 대화를 꿈꾸는 사이언스타임즈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㉔**

**독자가 말하는 사이언스타임즈 2년의 성과와 과제**

**'전문성있고 유익하며, 과학대중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ScienceTimes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숨가쁘게 달려온 2년. 함께 호흡해온 사이언스타임즈 독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성있고 유익하며, 일반인대상의 과학대중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 바로 독자의 대답이었다.

총 2천642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이언스타임즈 독자들은 응답자의 95%가 '기사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이언스타임즈 독자들은 기사에 대해 '매우 도움'(33%), '도움'(40%), '조금 도움'(22%)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무려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5.2%)거나 '도움되지 않는다'(0.5%)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에 불과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34.7%가 '과학기술계 이슈'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책'(17%), '신기술 및 연구개발 소식'(16%)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해제에 비해 사이언스타임즈가 가진 차별점으로 35%가 '전문성'을 꼽았다. '심층성'(16%)과 '교육적 효과'(12%)가 그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사이언스타임즈의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64%가 유익하다고 대답했으며, 재미있다는 의견은 13%, 따뜻하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일반독자들로부터 '유익한 매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정보 NEWS & INFO

자료실 DATA ROOM

과학인Scout RECRUIT

참여공간 COMMUNITY

클럽 CLUB

- HOME
- 회원찾기
- 사람잡고
- 행사일정

## 정책아이디어, 여기를 클릭!

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과학기술인과 일반인에게 정보와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다. 2월 현재 회원 수는 2천200명으로 과학기술인 등록자가 900명, 일반인이 1천300명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인의 의견수렴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과 일반인의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코너는 크게 두 곳,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사이버 공청회’와 자유토론방 성격의 ‘포럼’ 코너다.

사이버 공청회에서는 연구기획 평가사 자격제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 등의 정부 정책 등이 주제로 오른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006년 과학기술부가 중점추진할 시책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주제를 제안해 59개의 댓글이 올라오는 수확을 견지기도 했다.

과기부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정책에 대한 견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1:1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즉답이 가능한 모든 의견에는 과기부 담당 공무원이 댓글을 올리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사이버공청회 코너에 올라온 의견은 검토를 거쳐 올해 과기부 연두보고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포럼 코너에는 ‘이공계 여학생의 현주

소’ 과학기술혁신시대에 요구되는 과학자의 모델’ 등 비교적 자유로운 과학관련 주제가 올라온다. 이 코너는 과기부가 자체 선발한 8명의 ‘오피니언 프런티어’가 토론 주제도 제안하고 댓글도 달면서 운영자 역할을 한다. 오피니언 프런티어는 현직기자부터 연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를 지향하며 꾸민 공간은 ‘클럽’과 ‘그룹’ 두 곳이다.

‘클럽’은 일반 포털 사이트의 카페 공간과 같다. ‘과학기술인 클럽’과 ‘친목 클럽’으로 나뉘어 42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다. 이 중에는 과기부 공무원들이 개설한 클럽도 7~8개에 이른다. 공무원들의 업무 공유부터 취미 교류까지 다양한 얘기가 이곳에서 오간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클럽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룹’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문그룹과 관심그룹 중 어느 한 곳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도 ‘Auto 그룹’으로 붙였다. 전공과 관심 분야에 따라 18개의 그룹이 있다. 그룹 소속자는 자신이 선택한 세부 관심 분야에 따라 관련 뉴스와 정책, 행사 등의 맞춤 정보를 제공받는다.

클럽이나 그룹 모두 과기부 사이트 특성상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코너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 의견 수렴 토론방이나 카페보다 자료실 코너를 찾는 이용자가 더 많다. 자료실에서는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과학인 인물검색, 과학기자재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SnT-Net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 인터넷에 흩어져있는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정보 제공에 치중한다. 노하우(know-how)보다 노웨어(know-where)에 목말라하는 과학기술계 안팎의 네티즌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다. 신문사나 과학문화재단, KISTI 등과의 콘텐츠 제휴에 노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모아진 기사는 매일 2회 뉴스레터로도 발송한다. 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300여 명이 방문해 3천 회 정도의 기사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ST**



SnT-Net은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를 지향한다. '오피니언 프런티어' 클럽의 게시판.



전체뉴스보기 | 과총소개 ABOUT KOFST | 과총사업 ABOUT KOFST | 회원단체현황 ABOUT KOFST | 토론방 COMMUNITY |  | 2006. 02. 20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05년 9월 인터넷 뉴스레터 형식으로 창간하면서 사이버공간을 마련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발송해 온 한글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내용·형식 면에서 업그레이드한 '복간'이다. 매주 13만 명의 과총 회원,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에게 발송한다.

콘텐츠 개편의 목적은 하나,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다.

채영복 과총 회장은 뉴스레터 창간사에서 "모세혈관과 확장기라는 두 개의 단어만 생각하겠다"며 "과학기술계 일선 현장 곳곳을 모세혈관처럼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담고 여러분을 찾아가되, 현장에서 모아진 목소리는 사회에 크게 울려내는 확성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총은 뉴스레터 콘텐츠의 범위를 과학기술계 현안 및 정책 이슈로 확대했다.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여론, 일선 연구개발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다. '정책포커스' 코너가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취재하고 담아내는 성격이라면, '시사발언대'는 과학기술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공간이다.

지난 2월 7일 발행된 뉴스레터의 '연구비 비리 논란, 과연 종식되나' 정책포커스

기사는 2,700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15개의 의견 댓글이 게재돼 상당히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STS observer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대신 '단방향 뉴스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총이 최근 토론방을 만들고 '현장의 소리' 코너를 신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토론방은 회원들이 직접 토론주제를 제안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총은 매주 토론 주제와 의견 예시 글을 보여주는 '토론 메일'을 뉴스레터와 별개로 발송한다. 지금까지 '신기술 평가 시스템' '황우석 국익론' '연구비 관리 시스템' 등이 토론 주제로 제안돼 비교적 활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황우석 교수에게 다시 연구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은 이른바 '국익론' 논란은 지난 2월 초 토론 주제가 제시된 지 1주일 만에 385개의 의견 글과 이에 대한 댓글이 올라왔다. 이들 글에 대한 전체 조회 수는 6,500건을 넘었다. 물론 여기에는 토론 내용 뿐 아니라 주제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한몫했다.

연구 윤리를 상실한 황 교수를 두고 '연구 기회를 줄 것인가'를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과총은 "인

터넷 공간에서 황우석 국익론에 대한 일반인의 논란이 뜨겁다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 주제를 '황우석 국익론,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이름붙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것.

과총 뉴스레터 콘텐츠 가운데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생생현장 리포터' 코너다.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대학이나 지역의 과학기술계 소식을 취재해 기사를 만들고 있다. 과총은 지난해 10월 제 1기 Young 리포터 10명을 선발, 운영 중이다.

과총은 이렇게 모아진 목소리로 때로는 정부의 정책을 향해, 때로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사회를 향해 발언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 속에는 과총이 명실상부하게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민간 과학기술부의 위상과 신뢰를 찾아가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ST**

토론방

번호	제목	과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9	선임 과총기술부총리께 배려나 (1)	KOFST		2006-02-15	07
78	"연구비 관리시스템" 토론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4)	KOFST		2006-02-13	314
77	연구비 관리를 위한 제언 (1)	연구자		2006-02-17	13
76	법대로 연구나 집행하는데 2005년의 물로사... (4)	그레도 삼현		2006-02-16	79
75	통일법 연구비 삭감을 위한 2월 7일 의견 (1)	박두산		2006-02-16	116
74	이제 황우석학자의 형심입니다... (2)	황관민		2006-02-14	340

과총의 뉴스레터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주력한다. 과총 홈페이지 토론방 게시판.